

“아이디어가 정책된다”... 광주시, 정책제안 확대

광주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시정 반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더 제안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2025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제안신청 기회 확대 ▲제안 속의 및 발전절차 마련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제안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공모를 추진한다. 또 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개선 제안인 ‘내★일 제안’ 발굴 등을 진행한다.

‘현안정책’ 시민 공모·업무개선 발굴... 우수제안은 포상 태스크포steam 구성해 정책제안 숙성·실행 관리 체계화

이를 통해 시정 현안을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별 위원회 개최 시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위원들의 내실있는 제안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제안 속의 및 발전 절차와 함께 실행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민 제안의 경우 시정 활용가치는 있지만 구체성·실행 가능성이 낮아 이를 숙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제안숙성 내부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제안 심사, 실행 관리를 하고, 제안총괄담당자가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제안심사처리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기여도별로 포상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1년간 실시한 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절감, 국고·조세수입 증대, 행정 개선 등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특히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제안만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공모에 추천했지만, 올해부터는 광주시 소통플랫폼인 광주온(ON)의 채택 제안도 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접수 건수와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창의적 정책제안 반영으로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시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국민제안’과 광주ON 누리집(gwangjuon.gwangju.go.kr) ‘시민제안’을 통해 하면 된다. /박도일 기자



남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느린 학습자’ 효과
“공부방 더 다닐래요” 대화 나누며 밝아졌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광주 다음 통합돌봄 사업 일환으로 학습이 느린 아동을 마을에서 품는 남구형 특화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남구는 20일 “지난해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마을이 보듬고 함께 크는 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초학습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사업 성과를 잇기 위해 올해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한층 강화한 사업을 연이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느린 학습자는 좁은 의미에서 지능수치(IQ)가 70~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과 넓은 의미에서는 또래가 지닌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일컫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구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손잡고 아이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심리적 돌봄 차원에서 ‘마을이 보듬고 함께 크는 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학습

이 느린 아동 30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 기간 아이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시대 종합사회복지관, 양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대 1 인지 학습을 비롯해 신체활동 집단프로그램과 언어·놀이 치료 등을 받았다. 프로젝트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들은 기초학습능력 종합검사(BASA:CT) 사전·사후 조사에서 읽기와 쓰기 등 모든 영역에서 점수와 백분위 단계가 크게 향상됐다.

또 사회성 기술평정 척도(SSRS) 사전·사후 검사에서도 협동성과 공감, 자기조절 등의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향상된 효과를 얻었다.

특히 또래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대화를 포기할 만큼 자존감이 낮았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부터 먼저 대화를 시도하거나 담당 선생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사회적 및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임채일 기자

‘야행 숙박패키지’로 떠나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숙박·식사·영화관람 구성, 20일부터 광주아트패스서 판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4월 25~26일 개최하는 ‘2025 광주 국가유산 야행’을 1박 2일로 즐길 수 있는 숙박 패키지를 20일부터 광주아트패스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아트패스는 광주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을 스마트 기술과 융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예술여행 플랫폼이다. 관광 정보 검색, KTX 예약 등 스마트 모빌리티, 숙박·식사·체험·박물관 등 가맹점 합의를 받을 수 있다.

‘광주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과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활용

한 8야(夜) 테마 국가유산 야간문화 향유 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광주아트패스에서 올해 처음 1박 2일 유료 패키지를 기획·선보인다.

8야(夜) 중 야숙(夜宿)을 체험할 수 있는 ‘야행 숙박패키지’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한 유료 상품으로, 체류형 국가유산 테마관광을 활성화하고 야행을 통해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보다는 소수의 자유 여행객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숙박과 식사(조·식), 광주극장 영화관람권(또는 굿즈 교환



권)으로 구성됐으며, 관광명소 정보를 제공해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야행과 광주를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다. 야행 숙박패키지는 ‘광주아트패스’ 누리집(www.artpass.kr) 또는 앱을 통해 총 5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하며, 1인 10만 원, 2인 14만 원(특가)에 구입할 수 있다. /오철수 기자

리집(www.artpass.kr) 또는 앱을 통해 총 5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하며, 1인 10만 원, 2인 14만 원(특가)에 구입할 수 있다. /오철수 기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레지던스에 입주할 청년 작가 모집

복구, 오는 26일까지 전통미술 분야 지역 청년 작가 모집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의 레지던스(북구 하서로 818, 3층)에 입주할 청년 작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레지던스는 지역의 유망한 청년 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인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북구에서 조성한 곳으로 올해 해당 공간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통미술(회화, 공예 등)을 하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광주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광주에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광주 소재 미술대학을 졸업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가 북구일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과 개인 전용 작업실을 소유 및 운영 중인 자는 제외된다.

이번 모집하는 청년 작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거친 후 내달 중 작품 포트폴리오 및 면접 심사를 통해 2명을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개월간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3층 레지던스 창작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입주 기간 내 오픈 스튜디오 운영 및 전시회 개최(1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레지던스 공간에 관심 있는 청년 작가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오는 26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북구청 문화예술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모집은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만큼 역량 있는 청년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전남도,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

4월 20일까지... 증빙사진 첨부·설문 참여하면 추첨해 상품권 제공

전라남도가 자살률이 늘어나는 자살 고위험 시기(3~5월)를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와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의 또 다른 이름은 자살 고위험시기(3~5월)다.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스프링 피크(Spring Peak)’라고 한다.

봄철 자살률(3~5월) 증가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일조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과 새학기·졸업·구직 시기 등이어서 이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전남도가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자살자 수는 4월(245명)이 가장 많고, 계절별로 평균 봄(239명), 여름(214명), 가을(211명), 겨울(190명) 순이었다. /염선호 기자

이에 전남도는 자살고위험시기(3~5월) 동안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방·경찰, 자살 고위험 수단 관리기관 600개소에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자살 시도자 지원사업 안내’, ‘생명사랑 로고송 및 영상’ 등 홍보물 17종을 배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봄철 신체활동을 독려하고 도민의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까지 만보를 걷고, 만보 걸음 증빙 사진 촬영 후 네이 버프(QR)로 증빙사진을 올린 후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서구, ‘부정·부패·부조리 NO’... 청렴 교육 실시

타 지자체 비위 사례 공유로 경각심 고취, 공직기강 확립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서무·인허가 팀장과 담당 공무원, 신규·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김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는 영화와 사례로 배우는 공직 청렴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사무관리비 부처정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석우 기자

특히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와 부패 요인의 사전 차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모든 서구 공직자가 올곧은 가치관을 내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을 개선해 ‘착한도시 서구, 청렴도시 서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구는 이번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캠페인과 청렴 해피콜,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쇼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